Game p/16
창의력 키우는 게임 아세요
metro
Sports p/20
기성용 EPL 시즌 최다골
천억 더 털었습니다
담뱃값 인상 두달 세수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
출고량도 점차 회복… "결국 서민 세금만 늘어난 셈"
리퍼트 美대사 테러 피습
한·미동맹 균열 우려
p/3
KIA
WORLD PREMI
기아 스포츠 스페이스, 제네바모터쇼 주목
p/10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 적극 지원

정부가 부모를 따라 우리나라에 온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언어 장벽과 생활고로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 우려가 커 올해부터 조기 적응 교육과 공교육 진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지정한 전국 80개 예비학교에 중도입국 청소년 소개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공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자네트워크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방침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입국 때부터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외국인 등록 또는 체류 연장 때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은 체류 기간 혜택을 줄 계획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재외 교포 또는 결혼 이주민의 자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입국하는 탓에 공교육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구사가 가능해도 학업에 따라가기는 더욱 어렵고 부모 역시 맞벌이가 많아 방치되기 일쑤여서 학교 밖에 머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많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조선족 동포 4만3890명 가운데 취학 연령대인 만 7~18세 청소년 수는 2만6299명으로 집계됐다.

Supporting public education for immigrated teenagers

The government is actively supporting public education for immigrated teenagers who have come to Korea with their parents.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stated that Education for early adaptation and public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se teenagers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being isolated from the society due to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adjusting to the Korean culture.

For this,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planning on providing early adaptation program in 80 schools nation-wide and is planning on increasing the number of these students.

Along with this, Immigration network coordinators will be deployed to the affiliated Immigration Office and encourage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무지개 청소년센터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the immigrated teenagers to take their step into public education. Also, they are planning to give benefits when extending their stay or registering as an alien to those who have entered public education.

Immigrant teenagers can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if they enter Korea as overseas Koreans or married immigrants.

But the fact that they have a hard time speaking Korean has kept them from receiving public education. They may be able to use daily life expressions but that is not enough to catch up with the studies carried out in schools.

Moreover, parents are both busy working and therefore, cannot take care of them which leads them wandering outside of school.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Korean immigrants from China who are 19 years of age living in Korea are estimated to be 45,3890.

And among them, school aged children from 7~18 years of age are 26,299.

/재미PAGODA 영어(China Kim)

<경제성장률 목표 7%>

중국 '바오치 시대'

지속 안정으로 체질 개선

중국이 저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경제 성장률 8%대를 유지한다는 바오바(保八)에서 7%를 지키겠다는 '바오치(保七)'로 목표를 조절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7% 안팎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치인 7.4%에 머무르자 고속성장을 대신 지속적인 안정 성장으로 정책 목표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지난해 3.5%보다 낮은 3% 선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신규 취업자수를 1000만 명 이상 증가시켜 도시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의 2.3%에 해당하는 1조6200억 위안으로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1조3500억 위안에 비해 2700억 위안 늘어난 것이다.

◆2022년 우주정거장 건설 목표

2022년까지 지구궤도에 우주인이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유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로드맵도 공개됐다.

신화통신은 전인대에 참석한 중국 유인우주선 시스템 총설계사인 장바이난이 이같이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장바이난은 "2018년 우주정거장의 일부분인 모듈 발사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각각의 모듈을 결합해 2022년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보다 앞서 유인 우주선 선저우-11호를 내년에 발사하고 이후 톈궁-2호에 인원을 보충해줄 톈저우-1호도 발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국현기자 kim.ee@metroseoul.co.kr

벽화로 돌아온 차베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망 2주기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를 달리는 버스의 창 뒤로 차베스의 모습을 그린 벽화들이 보인다. /AP 연합뉴스

일본 대지진 4년 지났는데 주민 고통 여전

복구 난항… 오염수 대응 어려움·신뢰 추락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방사선 수치 때문에 연료봉 완전 인출은 막연한 상태고, 오염수 유출 방지책은 아직 결정도 못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대지진 사고 4주년을 앞두고 피해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은 폐로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완전한 폐로까지 최소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4호기 연료봉은 인출을 끝냈지만 1~3호기는 방사선량이 높아 작업자가 접근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4호기의 저장 수조에 보관된 핵연료를 꺼내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사용 후 핵연료봉 1331개, 미사용 핵연료봉 204개 등 1535개를 모두 인출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1~3호기는 핵연료봉 용융이 진행된 상태로, 안에에 유례한 방사선 수준이 높아 인출 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 원전 오염수 방지 속수무책

후쿠시마 제1원전의 연료봉 완전 인출에 십 년 넘게 걸려 들어간 상황에서 오염수 유출 방지마저 뾰족한 방안을 못 찾고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에는 오염수 약 57만톤이 보관돼 있다. 이 가운데 36만톤이 일정한 수준의 정화 처리를 거친 것이고 21만톤은 아직 정화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정화 처리를 해도 모든 오염 물질이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심각하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한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은 실효성이 논란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원전 주변 땅을 얼려 지하수를 막는 이 방법의 모의 실험에서 물을 완전히 얼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윤희기자 unique@

美 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122만 달러 몰수"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내 재산 122만6000 달러(약 13억4000만원)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재용씨 소유였다가 팔린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이다. /AP 연합뉴스

<외톨이형 테러리스트>

리퍼트 대사 테러범은 '외로운 늑대'

김기종 습격사건 발생—美에 '한국 내 반미 분위기' 메시지 줄 수 있어
한미관계 민감한 시점…"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등 확대해석 경계해야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테러를 한 용의자는 최근 유행하는 '외로운 늑대'로 파악된다. 특정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가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 나온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평가는 확대해석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테러가 한국 내 반미분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일 과거사 관련 발언으로 한미관계가 민감해진 상황에서 섣부른 확대해석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일운동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테러 사건 직후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테러를 한 김기종(55)씨는 통일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 왔지만 과격한 언행으로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점차 기피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0년 7월 주한 일본 대사에게 돌을 던진 사건 이후로는 더욱 기피인물이 된 탓에 점점 고립이 심해졌다"며 "이로 인한 고립감이 이번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초 문화활동가로 출발했지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통일 관련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해 왔다. 통일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직업활동가로 인식될 정도였다. 하지만 일상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 진영 내에서 존재감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그의 극단적인 주장이 주변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활동가로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왔다는 게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마디로 '왕따'였다는 이야기다. 김씨를 '외로운 늑대'로 봐야 하는 이유다.

'외로운 늑대'란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1인 또는 소수의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의미한다. 애초 1996년 러시아 남부 체첸반군이 스스로에게 붙인 말이다. 이후 미국의 한 극우 인종주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독자적 테러를 선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차용, 현재의 의미로 통하고 있다. 대부분 극단적 성향이며 사회적 외톨이로 분류된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베리타트)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 자택에 총격을 가한 테러범도 '외로운 늑대'였다"며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외로운 늑대'가 주요한 테러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사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18세 청소년의 황산테러가 발생하는 등 '외로운 늑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외로운 늑대 문제는 이른바 '일베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황산테러를 가한 청소년도 일베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관계는 셔먼 차관의 과거사 발언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리퍼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한때 '워싱턴 정가'에서 '정권의 실세'로 소문나기도 했다. 아직도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우리 정가나 외교가에서는 이번 테러에 대해 미국의 오해를 살만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에 참석했다가 괴한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사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빌며 외교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하겠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우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3면>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정 의장 '흥남철수' 아몬드 장군 묘비 헌화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인근에 있는 에드워드 아몬드 준장(1892~1979)의 묘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아몬드 장군은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인 흥남철수 직전 당시 선박 내 무기를 버리고 피란민들을 극적으로 살출시킨 당시 10군단장으로, 정 의장은 헌화 후 그의 외손자인 토마스 퍼거스 예비역 대령과 면담하고 격려했다. /국회 대변인실 제공

'세계일보법' 나오나… 형법개정 추진 중

대법원판례 "국가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어"
정윤회 문건 폭로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 대표적
신경민 "언론·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 족쇄로 악용"

이른바 '세계일보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2011년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언론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소송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2, 제3의 세계일보 소송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청와대 외에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병형기자

장관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그랜드슬램' 기록을 달성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조정회의에서 임 후보자가 1985년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 해명해 왔지만 당시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청약 자격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주택청약을 하지 않고 8개월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한 서초동 일대는 당시 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해당 주택이 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호재'가 현실화됐다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앞서 불거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는 진기록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인사검증에서 위장전입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어떠한 혜택을 본 적도 없었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윤아기자

metro Moskva

Молодые инвали москвичей побеж

metro Brazil

Monotrilho fica para 2017

모노레일 노선 골드 착공 다시 연기

몬고나스 공항과 모룸비 스타디움을 잇는 모노레일 노선 골드-17(17-OURO) 착공이 다시 늦어지고 있다. 이 모노레일은 당초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맞춰 완공을 목표로 삼았지만 현재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은 채 공사가 연기됐다. 이후 2016년 완공하기로 일정이 조정됐으나 도시교통부는 착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호베르투마리뉴 대로에 있는 인공 호수가 거론됐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etro France

Des opéros pour sauver des velos

자전거 수리에서 정비까지 OK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자전거 작업장이 화제다. 파리 20구에 위치한 자전거 작업장 레페로(L'opéro)는 무료로 자전거 수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저널리즘학교(ESJPA) 학생들이 모여 만든 이곳은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나 방문하면 자전거 수리부터 정비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지유세프 키트라레이 대표는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하는 자전거 부품을 이용해 자전거를 만들고 부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etro HongKong

HSBC150주년 기념화폐

나오자마자 가격 5배 급등

'HSBC 설립 150주년 기념화폐'(사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메트로 홍콩은 설립 150주년을 맞은 HSBC가 홍콩과 함께한 150년의 역사를 담은 150 홍콩달러(약 2만1000원)권 기념화폐 200만 장을 발행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 기념화폐는 2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1장당 가격은 380 홍콩달러(약 5만4000원)이다.

HSBC3388' 'HSBC8868' 'AA000168' 'HK888888' 등과 같은 인기 일련번호를 지닌 기념화폐는 경매를 통해 판매된다. 인기 번호가 35개 연결된 기념화폐의 경매 최저가는 6만8888 홍콩달러(약 97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온라인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왕에는 사전판매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야기 걱이 적고 2000 홍콩달러(약 28만 원)로 치솟은 상태다. 출시되자마자 가격이 5배 넘게 뛴 셈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6년 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150 홍콩달러권 기념화폐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이번 기념지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며 "홍콩에서 기념화폐 붐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화폐의 디자인도 화제다. 3년의 제작 과정을 거친 기념화폐에는 각기 다른 시대의 HSBC 빌딩 네 채가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HSBC와 홍콩의 끈끈한 역사 관계를 드러냈다.

HSBC 홀딩스의 CEO인 스튜어트 걸리버는 기념식에서 "HSBC는 홍콩에 안정적으로 화폐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홍콩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리=이국명기자

두팔로 킬리만자로 오른 사나이

장애 가진 젊은이 이색도전 화제…물구나무 등으로 5600m 정복

나란히 두 팔로 킬리만자로를 등반한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장애를 극복한 과정을 사진전으로 선보였다.

3일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모스크바 멀티미디어 예술 박물관에서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의 여행기를 주제로 한 이색 사진전이 개최됐다. 이들 중 알렉산드르 수리제프와 알렉산드르 포히리코(사진)는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를 두 팔로 등반해 주목을 받았다.

두 다리를 쓸 수 없어 물구나무를 서거나 온 몸으로 기어 산을 오르는 이들의 등반 여행은 벌써 두 번째이다. 2년 전 해발 4700m 높이의 산을 처음 등반했고 이번에는 킬리만자로의 길만스포인트(5681m)까지 올랐다.

알렉산드르 수리제프는 "이번 등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이었다"며 "뿌옇게 날리는 화산재 모래 속에서 7시간 동안 물구나무를 서거나 기어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쓸 수 없었고 손가락도 두 개니 없었지만 산에 오르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며 "몸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등반을 할 때에는 단단한 권투 글러브를 착용했다"고 덧붙였다.

등반 여행의 모든 경비는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선단체들이 기금을 모아 충당했다. 미국에서 온 사진작가도 이들의 여행에 함께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여행 계획을 짰고 올초 산행에 올랐다. 포히리코는 "우리의 노선이 무모하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수리제프는 "어릴 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고 15년간 고아원 생활을 했다"며 "이후 미국으로 입양됐고 양부모님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도전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리아 부예노바 기자 · 정리=장윤희기자

은행권, 대포통장과의 전쟁

"인출한도 낮추고 개설 요건 강화"

은행권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장기 무거래 계좌 등에 대한 인출한도를 낮추는 한편 통장 개설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으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체국과 단위농협에서 집중됐던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 은행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계좌의 인출한도를 4월부터 축소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와 미사용 계좌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는 종전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에서 각각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계좌인출 한도 증액 요청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종전 한도까지 인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금융감독원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주요대책 중 하나인 1년이상 자동화기기 장기미사용 계좌의 현금 인출한도 축소를 추진해왔다"며 "대포통장과 관련된 많은 피해가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예금계좌 개설기준과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또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향후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와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과 대책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절차를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해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던 농협은행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대상'을 따냈다.

캠페인을 통해 대포통장 비중이 2013년 17.8%에서 지난해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한 만큼 대포통장 근절 등에 우수한 영업점 등을 포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외환은행은 지난 1월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은행도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의심거래 항목을 확대했다.

한편 금융사기의 필수 범행 도구인 대포통장은 지난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4만4705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보다 16.3% 늘어난 규모로 전체 대포통장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2014년 하반기 60.9%로 크게 증가했다.

/박미선기자

market index <5일>

코스피	코스닥
1988.38 (+0.[illegible])	631.43 (+1.08)
금리	**환율**
1.98 (변동없음)	1100.[illegible] (+0.10)

프리미엄 스위트 맛보세요

5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열린 썬키스트 '프리미엄 스위트' 네이블 오렌지 출시 기념 행사에서 모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도착한 오렌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하 농협은행장(오른쪽 두번째)과 허권 노조위원장이 시민들에게 꽃씨와 화분을 나눠주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농협은행, 가두캠페인

NH농협은행은 5일 광화문역 출구에서 '고객사랑! 고객응원'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농협은행 출범 3주년을 기념하고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객에게 힘이 되는 은행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날 오전 김주하 은행장과 허권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150여명은 고객에게 분꽃·해바라기·과꽃 등 꽃씨와 화분을 나눠 줬다.

또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산물 상생마케팅 지원에서 우유와 [illegible]도 무료로 배부했다.

김 행장은 "항상 고객과 같이하는 농협은행이 되기 위해 꽃과 함께 행복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고객사랑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꽃씨와 화분을 나눠드리며 항상 농협은행을 사랑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박미선기자

"카드 내역관리부터 간편결제까지 한번에 OK"

현대카드, 앱 통합 어플리케이션 출시

카드 내역 관리와 간편결제가 한번에 이뤄지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5일 현대카드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와 앱카드 간편결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컨셉은 '심플(Simple)'과 '집중(Focused)'으로 현대카드 고객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각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지출 관리부터 혜택정보 확인과 간편결제까지 2~3개 어플리케이션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일반 카드사들은 PC 웹사이트 수준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간편결제 기능을 지닌 앱카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컨텐츠도 전면 개선됐다.

이는 700만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이용 행태를 분석해 빈도가 높은 메뉴를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고객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추구했다고 현대카드 측은 설명했다.

메인 메뉴는 크게 카드 사용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My Account'와 보유 포인트와 고객이 활용 가능한 혜택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나만의 혜택' 그리고 '앱카드'로 구성됐다.

또 손가락으로 화면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스와이프(Swipe) 기능'을 적용해 빠르게 메인화면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불필요한 탐색과정을 줄여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최대 3단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디자인도 모바일 카드 사용 환경에 맞춰 변경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각종 금융정보와 카드 사용추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맞는 새로운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서체의 크기를 키웠다"며 "주요 정보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직관적인 인포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가미하고 컬러와 아이콘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통합 어플리케이션은 현대카드의 전사적 화두인 '심플'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현대카드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선사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현대카드 어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거나 현대카드 앱카드를 업데이트하면 자동 설치된다. /박미선기자

서울 분양권 거래 송파구 가장 활발

지난해부터 분양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송파구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히 일어났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띤 것이다.

3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2013년~2014년 2년 동안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는 4만3903건이 이뤄졌다. 이는 2011년~2012년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2년 동안 2만3502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9배 약 87%가 증가한 것이다.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6255건이 거래됐다. 송파구는 최근 2~3년 동안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속도를 내며 기대감이 컸던 지역이다. 특히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지하철 수서역 일대를 업무·R&D·생산·물류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 개발을 선언하며 관심이 고조됐다.

복합도시 내 문정지구의 문정법조타운은 지난 2005년 6월 추진이 결정된 이후 8년 6개월 만인 지난 2013년 연말에 공사를 시작했다. 문정 미래형업무지구 지식산업센터도 지난해부터 분양이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의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김학철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TEL 02)721-9800 FAX 02)730-1561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김용범, 메리츠화재 경영정상화 성공할까

연초 임원 감축 이어 희망퇴직 실시… 전직원 연봉 20% 삭감

지난해 실적쇼크를 경험한 메리츠화재가 김용범(사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임원에 이어 직원 감축이라는 조감수를 두고 있다.

김 사장은 이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시절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만큼 메리츠화재는 이번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6일부터 희망퇴직을 골자로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 감축인원은 오는 9일 확정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는 희망퇴직 시 직급 및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최대 32개월분의 연봉과 자녀학자금(최대 1000만원), 전직지원 프로그램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8년차 직원의 경우 퇴직금은 2억원 가량이다. 남은 임원도 연봉의 20%가 삭감된다.

이번 구조조정은 이달 중순 선임되는 김용범 사장 내정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2년 8월 메리츠종금증권 합병 후 제주지역 일부 지점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인력감축과 사업비 감축 등을 실시했다. 부족한 인원은 고정 지급 비용이 낮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연봉 계약직으로 뽑았다.

특히 리테일의 경우 19개의 지점을 5개로 줄이는 '대형거점점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 메리츠종금은 지난해 영업이익 1443억4900만원을 기록, 전년 대비 111.5% 증가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전년 대비 77.8%, 180% 오른 1조5048억9000만원과 1447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김 내정자는 지난해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 메리츠종금을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업계 10위로 덩치를 키우는 데도 일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이미 종금업계에서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를 해낸 인물로 메리츠화재의 인력감축도 이에 기반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노조도 지난 2012년 전국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고 신기업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큰 갈등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오는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송혜리기자 kiw5404@metroseoul.co.kr

건설업계, 먹거리 찾아 '투잡'

3월 정기 수주총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잇달아 상정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른바 '투잡'을 뛰겠다는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오는 13일 열리는 주총에서 공중목욕탕, 수영장, 고급사우나, 스파, 음식점, 음식료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세계건설은 최근 공시를 통해 기존의 건설업과 건물관리 외에 복합쇼핑몰의 레저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목적 추가는 복합쇼핑몰의 레저사업부문 운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림산업은 20일로 계획된 주총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기술 등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의 관리, 라이선스 판매 및 관련 용역사업 진출과 관련한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석유화학 프로세스나 현수교 자립기술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을 팔기 위해 업태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정관에 추가한 뒤 6월 정도에 실적을 거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라도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사업과 환전, 교육서비스, 인터넷이용교육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을 상정한다.

한라 관계자는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바이오매스 시장 진출을 위해 태국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등 준비해왔다"며 "다른 사업들도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룡건설 역시 오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 사업목적 변경안을 논의한다. 추가 사업목적은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중고자동차 매매, 여신금융업, 할부금융업 등이다.

계룡건설 측은 "당장 자동차 판매 등의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계열사가 많지 않다 보니 매년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익구조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배한율기자

수은 에코쉽 펀드로 현대상선 벌크선 4척 건조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현대상선과 2700만달러 규모의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정철 하이자산운용 대표, 최성영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이석동 현대상선 대표, 석준욱 KSF선박금융 상무 등이 계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반도건설,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3월말 분양

반도건설이 이달 말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AB17블록에서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12층, 1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2가구 규모다.

김포도시철도(2018년 개통 예정) 마산역(가칭)이 단지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다. 김포공항역 환승을 통해 강북이나 여의도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M버스 정류장도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 초등학교가 바로 앞으로 개교할 예정이고, 은여울중학교도 가깝다. 가마지천수변공원, 김포생활체육관 등의 편의시설도 도보거리다.

초·중교가 인접한 교육환경에 발맞춰 단지 내 김포한강신도시 최초로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을 건립하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용적률이 100%가 넘지 않는 저밀도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해 쾌적성을 높였다. 일부 1, 2층 세대에 테라스를 적용해 저층 선호도를 끌어올렸다. 이 외에도 주방공간 일짜형 특화 등 다양한 혁신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 세 번째 분양으로 작년에 입주를 완료한 반도유보라 2차가 특히 큰 호평을 받고 있어 3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김포한강 역세권 아파트에 걸맞은 명품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배한율기자

GS건설, 미사강변도시 '미사강변리버뷰자이' 이달 분양

GS건설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서 '미사강변리버뷰자이'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동, 전용면적 91~132㎡(펜트하우스 포함), 전체 555가구 규모다.

지난해 11월 공급된 '미사강변센트럴자이'에 이은 후속 단지로, 앞서 '미사강변 센트럴자이'는 분양 당시 미사강변도시 민간분양 최초 1순위 청약 마감, 최고 경쟁률 기록을 세우며 계약 2주 만에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7만8755㎡ 크기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계획이고, 한강수변공원과도 가깝다. 특히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미사리조정경기장, 승마공원, 망월천근린공원 등 휴양 레저시설이 인접했다.

올림픽대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망을 갖췄고, 지구 내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미사역이 2018년 연장 개통할 예정이다.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엔터테인먼트시설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하남 유니온스퀘어도 2016년 들어설 계획이다.

내부에는 전용면적 128㎡와 132㎡로 구성되는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수요자들의 취향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 평면이 도입된다. 또 주력형에 따라 미스터 드레스룸, 서브 드레스룸과 서재, 취미실, 맘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실 공간이 마련된다.

한편, GS건설은 1차 성공 분양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Again 미사자이'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1차에서 낙첨된 청약자를 대상으로 '미사강변 리버뷰자이'에 재청약해 당첨, 계약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자전거를, 3명에게는 여행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번지 자이갤러리 2층에 마련되며, 입주는 2017년 3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기교적 완성과 예술적 몰입에 대한 최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세계 최정상 '현악 4중주단' 내한공연

2015. 3.10(화)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주최 | 예매 SAC Ticket 02-580-1300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티켓 R 11만원 S 9만원 A 7만원 B 5만원 C 3만원 공연문의 02-6292-9370

주식 쪼개는 아모레, 액면분할 바람 일으키나

액면분할 1년 후 거래량 두배·주가 30%↑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액면분할 결정으로 액면분할이 주식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액면분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거래량 증가와 주가 상승 효과가 기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는 지난 3월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아모레퍼시픽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액면분할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아모레G의 주가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유통 주식수 확대로 유동성 개선과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액면분할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활발히게 진행됐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액면분할을 시행한 상장사는 모두 53개사였다. 이들 기업의 거래량은 액면분할 시행을 기점으로 1년간 평균 184.32% 증가하고 주가는 29.94% 상승했다. 이는 해당 종목들의 액면분할 시행 직전 1년간의 평균거래량(주가)과 직후 1년간 평균 거래량(주가)을 비교한 결과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액면분할을 한 상장법인 53개사 가운데 액면분할 이후 1년간 평균거래량이 직전 1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업은 37곳(69.8%)이었다. 주가는 35곳(66.0%)이 상승했다. 액면분할 시행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주가와 거래량이 늘어난 셈이다.

2010년에는 제일기획, 아남전자 등 17개사가 액면분할을 해 주가와 거래량이 평균 45.38%, 91.96% 뛰었다. 2011년에는 동양, 경동나비엔, 녹십자홀딩스 등 22개사가 액면분할을 했다. 평균주가는 27.86% 올랐고 거래량은 249.43% 늘었다. 2012년에는 벽산, 보루네오 등 10개 기업이 주식을 분할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평균 4.15% 상승했고 거래량은 223.02% 늘었다.

2013년에는 고려산업, NICE, 태광물산, 한솔아트원제지 등 4개사가 액면분할을 실시했다. 이들의 주가는 40.25% 올랐고 거래량은 124.62% 늘었다. 태광물산의 거래량은 액면분할 이후 532.13% 뛰었다. 지난해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다시 주식분할 바람이 불고 있다.

황제주 아모레퍼시픽이 물꼬를 트기에 나서면서 다른 초고가 기업의 액면분할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액면분할 카드를 꺼내 들고 초고가주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 액면분할로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한국판 다우지수격인 KTOP 30의 편입조건에 시가총액 외에 거래량 등 유동성 지표를 반영하고,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지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고성장하는 기업에게 액면분할은 유동성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분할을 결정한 것은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지기자 eunji@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은퇴매거진 'THE100' 23호 발간

NH투자증권이 중년 여성과 전업주부들의 은퇴에 대한 내용을 담은 100세시대연구소 은퇴매거진 'THE100' 23호를 5일 발간했다.

'THE100' 23호는 '지구 위의 절반인 여성'에 주목하자는 취지로 '넷, 대한민국 아줌마들만 보세요'에서 중년 여성의 은퇴와 노후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 산업변화 사례와 고령화에 따른 유망산업, 유망한 시니어 일자리도 소개했다. 이 매거진은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이나 홈페이지(www.nhw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타사대체입고 이벤트 실시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3월말까지 은행계좌 개설 주식거래 서비스 BanKIS(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타사대체입고 이벤트 '2015 뱅키스로 Move Move'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증권사에 보유중인 국내 또는 해외주식을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계좌로 500만원 이상 대체입고시 1만원 상품권, 3억원 이상 입고시 최대 12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또 거래금액에 따라 뱅키스 신규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 상품권을, 기존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 무료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송상엽 e비즈니스본부장은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고객에게 작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계좌는 전국 15개 은행의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주는 '뱅키스 다이렉트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KDB대우증권, 에이티(AT)에셋과 전략적 업무 제휴 KDB대우증권은 4일 KDB대우증권 본사에서 유동석 스마트금융본부장과 에이티(AT)에셋 김천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채널 확대를 위한 업무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KDB대우증권 제공

스마트 원전 수혜주… 뭐가 있을까?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 원전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관련 수혜주가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스마트 공동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2조원 규모의 스마트(SMART) 원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해 세워 운영하고 사우디와 공동으로 제3국에까지 수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마트 원전 수출로 대우건설, 한전기술, 한전KPS, 효성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스마트 원전의 EPC(설계·구매·시공) 계약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키움증권 라진성 연구원은 "대우건설은 스마트 수출사업 전담 법인인 SMART Power 사의 지분을 11.2% 소유하고 있고, 원전 시공 주관 경험을 가진 국내 유일 EPC 가능 업체"라며 "대우건설이 EPC 계약 주체가 될 경우 SMART Power사의 지분 증가와 함께 향후 중소형 원전 시장에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상업용 스마트 원전 설계를 맡게 될 한전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한전기술은 1997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SMART 원전 개발사업에 참여해왔다. 하민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전기술의 수주금액은 사업비의 8~10%인 1700억~21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형 원전 수주 확대로 성장성이 확장될 것"으로 보였다.

한전KPS는 원전 완공시 정비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원전 완공 후 정비 부문에는 한전KPS가 참여할 가능성이 커 중장기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효성은 기자재 공급 업체로 2조원 규모의 현지 전력기기 시장 중 초고압변압기와 차단기, 전동기, 비상디젤발전기, 펌프 등 약 6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한다.

이 밖에도 'SMART Power' 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포뉴텍, 일진전기, 일진파워, 성일에스아이엠 등이 관련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vs LG 모바일 결제시장 전략 대결

삼성 '삼성페이'로 영토확장· LG 스마트워치로 NFC 시장 공략 박차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아침 8시에 집을 나서는 A씨.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A씨는 지갑이나 카드를 꺼내는 대신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시계를 태그한다. '삑' 소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통과된다. 오후 2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A씨는 양손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손목에 착용한 시계를 결제관에 올려 손쉽게 결제한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간편 결제 시대가 실용화를 앞둔 단계에서 LG전자가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모바일 결제 시장 선점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해 혁신 기능으로 삼성페이를 선보인 반면 LG전자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혁신보다는 간편함과 익숙함을 무기로 내세운 것이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를 공개하고 현재 서비스 중인 NFC(근거리 무선통신)에 이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LG전자는 NFC에 올인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외 카드사와 잇따라 제휴하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 다소 느긋한 모습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카드사와의 제휴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없다"며 "사용자들이 요금 결제를 위해 호주머니에서 카드나 지갑을 꺼내는 불편함을 줄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에 NFC기능을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제휴만 하면 언제든지 실행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LG전자가 MWC 2015에서 선보인 스마트워치인 'LG 워치 어베인 LTE'는 NFC기반 월렛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탑재했다. 스마트폰 없이 스마트워치만 결제 기기에 갖다 대면 충전과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NFC 결제기기 있는 대중교통,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결제시 사용금액과 잔여금액도 실시간으로 스마트워치 화면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NFC 결제를 할 수 있는 가게는 전국에 2만6000여곳. 편의점의 경우는 NFC 결제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CU 관계자는 "2월 말 기준 8492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며 "몇년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훈기자 yss@metroseoul.co.kr

LG전자 스마트워치 '어베인 LTE'

삼성전자 'KIMES 2015' 참가

첨단 영상진단장비 전시

삼성전자가 영상진단의료기기 신제품을 국내에 선보이며 보폭을 넓히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5~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5)에 참가해 디지털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기, 이동형 CT 등 신제품을 포함한 주요 영상진단기기 9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뛰어난 영상 품질과 사용성을 강화해 지난 2월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 'GC85A'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60A'를 전면에 내세운다. 화질을 개선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영상처리 기술인 'S-Vue', 삼성 엑스레이 제품간 디텍터를 공유화할 수 있는 'S-Share', 방수·방진 기능을 적용해 내구성을 높인 1.63kg의 초경량 'S-디텍터' 등의 기능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기존 초음파 진단기기 'RS80A'에 개선된 영상 품질과 진단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탑재한 영상의학과용 프리미엄 기기 'RS80A with Prestige'도 선보인다. 이 기기는 올 상반기 정식 출시 예정으로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찾기 위해 초음의 영상에 CT와 MRI 이미지를 정합할 수 있는 'S-Fusion', 제내 조직의 경화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S-Shearwave', 표현력을 강조한 3D·4D 영상을 제공하는 'Natural Vue' 등 다양한 진단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삼성의 중·대형 병원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와 현장진단용 초음파 진단기기, 수술실 내에서 빠른 촬영이 가능한 이동형 CT도 함께 전시한다.

/김학선기자 khsung0404@

SUHD TV로 북미 시장 공략

삼성전자, UHD 1개월 연속 점유율 50% 돌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SUHD TV를 비롯한 2015년도 신제품을 파트너에게 공개하며 미국 TV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올랜도 힐튼 호텔에서 북미 딜러 서밋(North America Dealer Summit)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미국 주요 거래선 230여명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신제품인 105·88·78·65인치 SUHD TV를 비롯해 78·65·55형 커브드 UHD TV 등 북미 시장을 겨냥한 전략제품이 대거 전시됐다.

현장에서는 기존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극복해 놀라운 밝기와 명암비, 색재현력을 보여주는 SUHD TV의 화질에 대해 찬사가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관계자들은 타이젠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TV를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3월부터 SUHD TV 라인업을 북미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NPD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북미 UHD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51.0%의 점유율을 기록해 10개월 연속 50%를 상회했다. 이는 북미 시장 내 UHD TV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조사의 점유율을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김학선기자

삼성전자 북미 딜러 서밋 행사에 참석한 파트너들이 2015년 신제품 SUHD TV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조준호 LG전자 사장 "선택과 집중 통했다"

'G3' 최고 스마트폰 선정·'워치 어베인' 9관왕

LG전자의 'G3'가 지난해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선정됐다. 새로 공개한 스마트워치 신제품도 9관왕에 오르며 호평을 받았다.

LG전자는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LG전자의 G3와 애플의 아이폰6을 '최고의 스마트폰'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GSMA는 "G3는 LG전자의 휴대폰 매출을 전년 대비 16%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 최초의 QHD 디스플레이, OIS플러스를 탑재한 1300만 화소 카메라, 레이저 오토 포커스 등에 대해 호평했다.

이번 MWC에서 주목받은 LG전자의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과 'LG 워치 어베인 LTE'는 우버기즈모, 디지털트렌드 등 해외 유력 IT 매체 9곳으로부터 'MWC 최고 스마트워치'에 선정됐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미 있는 글로벌 Top 3를 달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훈기자 yss@

이상운 효성 부회장 "고객가치 만족시켜라"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모든 경영활동에 고객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상운(사진) 효성 부회장은 5일 CEO레터를 통해 "모든 산업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고객들도 날로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거나 남을 따라하기에 바쁜 기업이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며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Market Driven Company로의 혁신"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MDC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와 경쟁사의 대응, 최신기술 동향, 정중동으로 흐르는 트렌드 변화 등 정보를 수집하는 Market Sensing 활동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감지와 즉각적인 대응이 계속 이어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야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에 서고, 시장선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고객은 물론 2차 고객까지 우리 부품소재를 이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

친환경·고성능·초소형 車 한자리에

국내외 업체 제네바모터쇼서 신차 대거 공개

'제네바모터쇼 2015'가 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 전시장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내외 업체들이 신차를 대거 선보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2L엔진을 1.6L엔진으로 다운사이징한 소형 SUV '올 뉴 투싼'을 출시했다. 투싼은 지난해 현대차 모델 가운데 유럽시장에서 9만여대가 팔린 모델이다. 기아자동차는 신형 K5의 외관형 콘셉트카인 스포츠스페이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유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티볼리를 첫 번째 공개했다.

현대차는 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유럽 전략형 해치백 i20의 3도어 모델인 i20 쿠페도 함께 전시했다. 이 차량은 다음달부터 터키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 판매에 들어간다.

기아차가 선보인 스포츠스페이스는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왜건 스타일이다. K5를 기반으로 제작돼 기아차가 상반기 중 선보일 신형 K5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기아차는 또 유럽 전략 모델인 씨드의 고성능 버전인 씨드 GT를 공개하고 하반기 판매에 나선다.

쌍용차는 티볼리를 글로벌 시장에 첫 공개하고 공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쌍용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티볼리를 유럽시장에 최초로 선보였으며 친환경 콘셉트카 '티볼리 EV R'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우디는 뉴 R8 V10, 뉴 R8 V10 플러스, R8 e-트론, Q7 e-트론 콰트로, RS3 스포트백, 아우디 프롤로그 아반트 컨셉트카 등 7개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고성능 스포츠카 R8의 2세대 모델인 뉴 R8은 5.2리터 FSI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540마력을 발휘하는 R8 V10과 최고출력 610마력의 R8 V10 플러스 2가지 모델로 나뉜다. R8 V10 플러스는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3.2초에 도달하고 안전최고속도는 330km/h이다.

렉서스는 초소형 콘셉트(ultra-compact) 'LF-SA'를 세계최초로 공개했다.

LF-SA는 일상생활에서 최신기술에 의한 자동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하는 기쁨을 표현한 스터디 모델이다. 프랑스 니스에 거점을 둔 디자인 스튜디오 ED2(ED 스퀘어)가 기획에서부터 모델 제작까지 일관되게 담당했다. 2+2인승의 경자급이지만 대담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최첨단 디자인 트렌드와 렉서스가 추구하는 궁극의 럭셔리를 구현했다. /김성훈기자 fun@metroseoul.co.kr

정몽구재단 교육지원 속도

'온드림스쿨' 사업 확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유영학)이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진로탐색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온드림스쿨'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몽구 재단은 교육부, KBS미디어와 함께 5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영학 재단 이사장, 박명문 KBS미디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농산어촌 청소년 진로 및 인성 교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전면도입을 앞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동아리·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유학기제 시행을 계기로 정몽구 재단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다양한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몽구 재단은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교육부, KBS미디어와 함께 '청소년 공감콘서트 온드림스쿨'을 진행한다.

'청소년 공감콘서트 온드림스쿨'은 ▲분야별 유명인과 전문가 멘토의 강연 ▲지역 청소년 동아리의 문화예술 공연 ▲멘토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대담 등으로 다채롭게 토크 콘서트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청소년 진로 및 인성교육

왼쪽부터 유영학 정몽구 재단 이사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명문 KBS미디어 사장. /정몽구재단 제공

평소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웠던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본인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콘서트에는 개그맨 김병만, 방송인 전현무, 시인 김용택, 뉴스앵커 황상무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위한 강연 멘토로 직접 출연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선사할 계획이다.

정몽구 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전북 김제, 경남 함안, 충남 홍성, 강원 삼척, 전남 장성, 경북 상주, 충북 음성 등 권역별 도시를 순회하며 지역 내 청소년들을 무료로 초청해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정몽구 재단은 지난 2012년 재단의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포괄하는 인재육성 브랜드 '온드림스쿨(on Dream School)'을 발족했다. /김성훈기자

차선 이탈시 자동복귀 기술 탑재 '제네시스' 출시

현대자동차는 5일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 사양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2015 제네시스'를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2015 제네시스'는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과 어드밴스드 에어백, 뒷좌석 센터 헤드레스트 등 안전사양을 새로 추가했다.

또 전 모델 고급 브랜드 타이어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편의사양 등을 하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15 제네시스'에 기존 일부 모델의 풋파킹 브레이크를 전자식파킹시스템(EPB)으로 고급화해 적용했다. 3.8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어라운드뷰 모니터링시스템(AVM) ▲전동식 트렁크 등을 3.3 트림에서도 선택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LKAS)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조향장치가 자동으로 조절돼 차선으로 자동 복귀시켜주는 최첨단 기술이다. 국내 도로 상황에 최적화된 가상 차선시스템을 이용해 작동 성능을 크게 높였다.

가상 차선시스템은 인식 중인 도로의 폭과 차선 정보를 이용, 주행 중 차선 일부 모연식이 발생해도 정상적인 차선을 이미지화해 차량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이다. 중앙 가드레일로 인한 그림자 또는 도로의 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을 방지한다.

'2015 제네시스'의 판매가격은 ▲3.3 모던 4650만원 ▲3.3 프리미엄 5255만원 ▲3.8 익스클루시브 5463만원 ▲3.8 프레스티지 6070만원 ▲3.8 파이니스트 6920만원이다. /김성훈기자

김영재 볼보트럭 사장 "유로6트럭, 고객 수익성 최상으로 이끌 것"

"볼보트럭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모두 트럭으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트럭의 품질이 고객의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고객들의 수익성을 최상으로 이끄는 트럭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 확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5일 유로6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볼보트럭 출시 행사는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볼보트럭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열어 눈길을 끌었다. 보통의 신차 행사가 컨벤션센터나 호텔 등에서 열리는 것과 대조된 모습이었다.

볼보트럭 김영재 사장이 새롭게 출시한 FH 16 750 트랙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사장은 볼보트럭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볼보트럭은 연비, 잔존가치 등이 높고, 정비 네트워크도 뛰어나 구매자의 수익성을 최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올해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볼보트럭은 이날 FMX 540마력 8x4 덤프트럭, FMX 트라이덤 덤프트럭, FH16 750마력 트랙터를 포함한 4가지 모델을 선보였다. /양소리기자 Ⅱsound@

총 맞아도 안 터지는 배터리 개발 속도낸다

삼성SDI, 폭발사고 막기 위해 액체전해질과 분리막을 고체전해질로 대체

리튬이온 배터리 활용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삼성SDI는 총알이 관통해도 터지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5일 삼성SDI에 따르면 배터리 사고의 대부분은 충격에 의한 폭발이 원인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음극과 양극이 분리막을 중심으로 분리돼 있는 형태다. 충격을 받아 분리막이 훼손되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을 받은 전해질이 기체로 변화하면서 폭발로 이어지게 된다.

삼성SDI는 이러한 폭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액체전해질과 분리막을 고체전해질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고체전해질을 사용할 경우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중간에 놓인 고체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액체전해질과는 달리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전고체(全固體) 배터리(All Solid Battery)라고 부른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흐르지 않는 특성 때문에 총알이 관통해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에 강한 배터리가 될 수 있다.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더불어 삼성SDI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과충전, 과방전, 과열 등을 방지하는 안전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제품 생산 전 배터리 발화 환경을 모사한 혹독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용도별 기준에 따른 4대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하한다는 설명이다.

4대 안전성 테스트 평가 항목과 방법은 관통(못으로 배터리를 뚫는 테스트), 충돌(무게 추 낙하 등 강력한 외부 충격을 가하는 테스트), 압축(강한 힘으로 배터리를 구부러뜨리는 테스트), 열노출(높은 열에 기준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테스트) 등이다.

시장조사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납축 배터리 시장 규모는 320억 달러(약 34조원)로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엔 납축 배터리 시장 중 15억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됐다.

이는 점차 가속화돼 2020년에는 대체 시장 규모가 68억 달러(약 7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중금속인 납을 사용하는 납축 배터리에 비해 유해물질이 적어 친환경적이며 △납축 배터리에 비해 크기와 무게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고 출력이 좋으며 수명이 길고 △냉난방 등 환경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납축 배터리에 비교해 환경적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모바일을 바탕으로 한 소형 정보통신기술(IT) 기기용 시장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승기를 잡았다. 전동공구를 비롯한 뉴 어플리케이션 분야와 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중대형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납축과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쟁이 중대형 산업기기용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 같은 트렌드 속에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골프카트, 전기자전거, 자동차, 비상전원공급장치(UPS), ESS용 시장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우디아라비아에 창조경제 이식

SK텔레콤, 사우디텔레콤과 MOU 체결

SK텔레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창조경제 이식에 나선다.

SK텔레콤은 5일 '한-사우디 비즈포럼'이 열린 사우디 리야드 소재 포시즌호텔에서 사우디텔레콤과 SK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수출 및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와 SK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현지화해 적용한다. 양국의 첨단 기술·솔루션을 공동 발굴해 벤처-대기업 간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사우디판 창조경제형 '민-관-기업 협력 모델'을 선보일 전망이다.

또 SK텔레콤은 라이프웨어,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자사의 제품과 기술, 마케팅 노하우를 중동지역에 소개한다. 사우디텔레콤은 기존 통신시장 영역을 뛰어넘는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동현 (왼쪽부터) SK텔레콤 사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에마드 일 아우다흐 사우디텔레콤 CEO 직무대행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적용한 신성장 사업 연구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장동현 사장은 "고객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동과 동아시아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양사의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들이 양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와 유정준 SK글로벌성장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에마드 일 아우다흐 사우디텔레콤 CEO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유선준기자

KT '올레 패밀리박스' 혜택 강화

KT가 팝콘(혜택쿠폰) 선사, 패밀리박스 혜택 강화, 올레멤버십 VIP 서비스 확대 등 올해도 2년 이상 올레모바일 장기 가입자를 위한 혜택 강화에 나섰다.

KT는 그 첫걸음으로 2년 이상 올레 모바일을 사용한 장기 고객 총 700만 명에게 연 4회 골라 쓸 수 있는 팝콘(혜택쿠폰)을 선사한다고 5일 밝혔다.

'팝콘'은 △데이터 1GB △올레tv모바일팩 1개월 △음성 통화 30분 △기본료 5000원(청소년) 중 원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2, 5, 8, 11월 총 4회 제공된다.

올레tv모바일팩은 80여 개 실시간 TV채널과 7만여 편의 고화질 VOD(주문형 비디오)를 즐길 수 있는 인기 앱 서비스다. 전용데이터가 10GB까지 확대됐다.

KT는 2년 이상 올레 모바일을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팝콘'을 10일부터 일괄 제공한다. 제공 받은 '팝콘'은 △올레닷컴(www.olleh.com) △모바일 고객센터 △가까운 올레매장 등에서 간단하게 등록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KT는 3월부터 '올레 패밀리박스'의 혜택도 강화한다. 올레 패밀리박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출시된 가족혜택 플랫폼 서비스로 KT 결합 상품에 가입한 가족끼리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손쉽게 공유하고 매월 보너스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 및 올레 와이파이(WiFi)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선준기자

SKT, 몽골통신사에 기술 전수

SK텔레콤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호평을 받은 LTE 네트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기업들과 사업 협력에 나섰다.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15 현장에서 대만 타이완모바일, 몽골 스카이텔과 LTE 네트워크 기술 컨설팅 협약(MOU)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두 회사에 LTE 네트워크 성능 향상과 자체 개발한 실시간 고객 체감품질 관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 솔루션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또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인 노키아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노키아가 보유한 전 세계 150여개국 600여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네트워크 운용 노하우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회사는 러시아 통신사 메가폰, 인도네시아 스마트프렌, 중국 차이나텔레콤 등에 3G LTE 기술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 준 바 있다.

이종봉 SK텔레콤 네트워크부문장은 "우수한 네트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자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 국내 고객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중소 협력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준기자

"사물인터넷, 인간의 뇌 대신할 것"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뭔가 쓰나미 같은 것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를 참관한 첫 일성을 이렇게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시작하는 원년(Starting Year)이라는 것을 이번 전시회에서 실감했다고 했다. 매년 MWC 전시장을 찾는 그지만 이번처럼 참관 소감을 강렬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다.

"저는 IoT를 '정보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 of Information)'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를 위한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기계는 사람을 대체하려는 것이고, 사람의 눈, 귀, 입을 대신하는 것이 IoT의 시초입니다."

이번 MWC에서 유럽 등에서 온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IoT가 아직 생소한 듯 보였다. M2M(Machine to Machine)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보다 진일보한 IoT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IoT의 세상이 이제 막 열리려는 이때에 이 부회장은 IoT가 진화할 미래의 모습을 예견했다.

"IoT는 기계를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앞으로 인텔리전스(지능)가 들어간 IoTM(Internet of Thinking Machine)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뇌(Brain)를 대신하는 IoB(Internet of Brains)로 진화할 것입니다." /유선준기자

담뱃세 인상 두달… 세금 1000억원 더 냈다

담배 판매량 회복세… 세금 더 늘듯

1월 담뱃세 인상 후 두 달동안 약 1000억원의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열풍으로 반토막났던 담배 출고량도 점차 회복되어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월과 2월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106억 2000만원이 늘었다.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1월 4945억3000만원, 2월 23일까지 4363억5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1월은 447억1000만원, 2월은 659억1000원이 각각 더 징수됐다. 지난해 담배출고시 부과된 세금은 1월 4498억2000만원, 2월 3704억 4000만원이었다.

담배 판매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월 담배출고량은 1억7000만갑으로 전년동월대비 50%(3억4000만갑) 감소했다. 2월 출고량은 23일 기준 1억5000만갑으로 지난해 2월 2억8000만갑에서 46%가 줄었다. 설 연휴와 2월이 28일까지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매량이 소폭 회복된 것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지난해까지 출고시 1323원, 판매 시 227원 등 1550원이 부과됐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이었다. 여기에 출고가와 유통마진 950원이 더 붙는다.

올 1월1일부터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모두 인상되고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돼 세금과 부담금이 총 3318원으로 늘었다.

출고시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에 출고가와 유통마진 1182원이 붙는다. 담배 가격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2%에서 올해 73.7%로 늘었다.

올해부터 모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세금은 2조8000억원에서 5조원이 더 걷힐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량이 34% 줄고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국회예산처는 담배소비량이 20% 줄고 세수는 5조456억원이 늘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이 2000원씩 오르면서 올해 담배 소비량은 지난해 43억4100만갑보다 34% 줄어든 28억6500만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신화기자 sensky7@metroseoul.co.kr

이마트, 국산 농산물 100억원 지원

'국산의 힘 프로젝트' 가동

이마트(대표 이갑수)는 국산 농수축산물을 발굴해 지원하는 '국산의 힘 프로젝트'를 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산의 힘 프로젝트는 이 땅의 농부와 어부들이 생산한 좋은 국산 농수축산물 발굴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마트의 상생 프로젝트다.

이마트는 국산 농수축산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 발굴, 품질 강화, 판로 확대, 마케팅 등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산의 힘 프로젝트 상품 매출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최대 7배까지 늘이겠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국산의 힘 프로젝트 상품에 대한 품질 개선과 패키지 신규 디자인 개발을 진행해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한다. 이마트 매입 강도확대에 판로로 더 넓혀준다. 또 이마트 내외부 고지물과 영상물을 제작해주고 기존 이마트 전단과 광고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해당 생산자에게는 이마트 바이어의 직접 컨설팅과 해외 선진 농어업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보라기자

롯데마트, 친환경 경영으로 상생

중소형 유통매장 친환경 점포화 지원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지역 중소형 유통 매장을 친환경 점포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지원하며 골목상권과의 상생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녹색매장 지정 제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난해 12월 기준 86개의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 받아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친환경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다.

롯데마트는 매장 내 설치된 22만여 개의 고발열 조명을 저발열 LED 조명으로 교체해 연간 108억원 가량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러한 노력으로 감면 받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골목상권과의 상생 사업에 환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환경산업기술원,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골목상권 중소형 유통매장의 친환경 점포화 사업 지원 협약식을 맺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나들가게 40여 곳에 LED 조명 교체 설치, 에너지 절감 노하우 전수 등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 골목상권 점주와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녹색상품 바로 알기, 그린카드 사용 등 녹색 교육과 캠페인을 펼쳐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해 골목상권 중소 유통 매장에 지원한 금액은 1억원 규모에 달한다.

롯데마트는 골목상권 친환경 점포화 사업 범위를 전국 확대해 올 상반기에는 전인, 광주 지역 20여개 나들가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CJ '비비고 만두' 러 냉동식품시장 진출

연매출 100억 목표

CJ제일제당은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프리미엄급 만두를 앞세워 러시아 냉동식품 시장에 진출했다고 5일 밝혔다.

러시아 정부 주도로 도시화 권역이 확장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냉동식품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두부 야채 군만두·비비고 김치 두부 군만두·비비고 연육 왕교자·비비고 샤오롱 만두·비비고 왕교자·비비고 군만두·비비고 물만두·비비고 왕만두 등 총 8종을 러시아 시장에 내놨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형 유통채널 입점에 집중해 현재 독일계 유통채인인 메트로 74개 전점과 러시아 연방체인인 페레크로스톡 100개점 등에서 이들 제품을 판매 중이다.

'비비고' 만두 러시아 대형마트 시식행사 모습 /CJ제일제당 제공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 외에도 앞으로 다른 냉동제품류도 출시하고 월드스타 싸이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 등을 통해 내년에는 러시아에서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러시아 냉동식품 시장은 2007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약 9조원으로 급성장한데 이어 2017년에는 10조원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창원 CJ제일제당 식품글로벌 해외영업팀 과장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전략제품 중 하나인 비비고 만두가 성공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자리잡고 한국 전통의 만두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비비고 만두 외에도 냉동면 등 냉동 카테고리를 적극 확대해 러시아 식품 시장에서 케이-푸드 열풍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갤러리아百,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 국내산 출시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식품관인 고메이 494는 5일부터 산지직송으로 제주산 애플망고를 올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본래 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과일이지만 우리나라 제주도 서귀포에서도 토착화해 생산했다. 가격은 100g당 1만3300원 /갤러리아 제공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패배를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포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듯
농협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NH농협
NH 농협

맥주시장 판 흔드는 롯데주류 '클라우드'

2017년까지 6000억원 투자… 충주에 맥주 2공장 착공
2공장 완공 후 연간 30만㎘ 맥주 생산… 마케팅 강화

롯데주류(대표 이재혁)의 행보가 거침없다. 맥주 클라우드 돌풍의 주역 롯데주류가 충주 공장 증설에 나서면서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양강 체제였던 맥주시장을 흔들고 있다.

롯데주류는 충주시에 2017년 제품 생산을 목표로 약 6000억원을 투입해 맥주 2공장을 착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롯데주류의 맥주 2공장은 현재 충주시에서 조성중인 에가폴리스 내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연간 20만㎘ 규모의 생산이 가능하다.

롯데주류가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선 것은 클라우드가 기대 이상의 판매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는 지난해 4월 22일 론칭 후 100일간 2700만 병을 판매하고 출시 9개월 만인 지난 1월 누적 판매 1억 병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미주 지역에 대한 수출까지 시작하는 등 국내외에서 꾸준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맥주 1공장의 생산 규모를 늘리는 라인 증설 작업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연간 10만㎘, 맥주 2공장이 완공되는 2017년부터는 연간 30만㎘의 맥주 생산이 가능하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출시한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기존 공장의 라인 증설에 이어 신규 공장을 건설하게 됐다"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기존보다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맥주 시장의 삼국시대를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롯데 맥주2공장 조감도. /롯데주류 제공

업계에선 롯데주류의 공격 경영으로 주류업계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양대 산맥의 위세에도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주류를 주시하고 있다"며 "2017년 공장 증설이 완공되면 본격적인 맥주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더 베이직하우스, 다반 이어 '겜비'도 정리

론칭 2년 만에 철수… 중국 정식 매장도 못내

더 베이직하우스(대표 우종완)가 브랜드 슬림화에 나섰다. 지난해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다반'에 이어 올해는 제화 브랜드 '겜비' 사업을 접기로 했다.

5일 더 베이직하우스(대표 우종완)에 따르면 지난 2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있던 겜비 매장을 철수했다. 아직 폐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롯데백화점 수원점과 가로수길 베이직하우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상반기 중 정리될 예정이다.

겜비는 지난 2012년 디자이너 이겜비를 이사직으로 영입하고 이 이사의 이름을 딴 겜비를 2013년 론칭했다. 아티스트 슈즈 브랜드를 표방하며 이겜비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해 글로벌 마스터피스 슈즈 브랜드로 선보였다.

론칭 당시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소비자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론칭 2년 여 만에 브랜드 철수를 결정했다. 매장 수도 단독 매장 2곳과 숍인숍 개념으로 들어간 매장 1곳에 그치는 등 매장 수 확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베이직하우스 관계자는 "2년 가량 브랜드를 운영해왔는데 매장을 내도 신통치가 않았다"며 "디자인은 훌륭했지만 대중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 판매로 연결되기에는 무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진출도 시도해보기 전에 무산됐다. 테스트 차원에서 중국 현지에 있는 베이직하우스 여성 브랜드의 일부 매장에서 몇 개 상품만 판매했으나 반응이 좋지 않아 정식 매장도 내지 못했다. 앞서 더 베이직하우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 남성복 다반의 국내 사업도 중단했다.

/유수정기자 [illegible]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자연 수분보충' 코카-콜라사는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카페에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음료로 사랑 받고 있는 №1 프리미엄 코코넛음료 '지코(ZICO) 오리지널'의 국내 출시를 기념한 론칭 행사를 열었다.

까스텔바작, 7개 매장 오픈… "3040골프족 공략"

패션그룹형지(대표 최병오)가 지난해 국내 상표권을 인수한 골프웨어 '까스텔바작'의 매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골프웨어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형지는 지난 1일 서울·용인·수원 등지에 까스텔바작 매장을 7개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1일 서울 역삼동과 개포동 직영 매장 오픈을 시작해 수원영통·용인죽전·목포하당·진수정존에 매장을 연 데 이어 4일 여수화동에 7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이를 시작으로 3월 중에 전국 30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본 신상품도 공개됐다.

까스텔바작의 독창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팝아트를 적용한 '오리지널 라인', 골프는 물론 일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 라인', 도시감성의 스포티 룩을 선보이는 '어반 스포츠 라인' 등 3가지로 운영된다. 라인 별 최적화된 고급 소재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라운딩의 계절' 봄… 골프에 꽂힌 백화점

롯데·현대百 대규모 할인전… 신세계百 日 골프웨어 론칭

백화점업계가 골프웨어에 꽂혔다. 정부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시사한데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봄을 맞아 골프 관련 행사와 브랜드 론칭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8일까지 본점·잠실점·부산본점 등 5개 점포에서 골프 의류와 용품을 40~70% 저렴하게 내놓았다. 이번 행사에는 나이키골프·아디다스골프·파리게이츠·아마나·테일러메이드 등 32개 골프 브랜드가 참여했다. 행사 규모는 15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골프 활성화 방침과 한국 선수들의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선전 등에 힘입어 지난달 골프 상품군 매출 성장이 19%에 이르렀다"며 "더 많은 사람이 골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상품과 혜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서울 무역센터점 10층 에메랄드홀에서 제2회 중고 골프 페어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행사보다 물량을 2배 이상 늘려 20억원 규모로 기획했다.

국내 중고 골프채 브랜드 골프프렌드와 혼마·타이틀리스트 등에서 중고 골프 클럽을 정상가보다 30~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중고 골프채를 매입하는 골프채 리사이클(재활용) 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MU스포츠·아다바트 등의 골프웨어와 골프용품도 특가에 내놓았다.

신세계백화점은 6일 일본 골프웨어 브랜드 '마크앤로나'(사진)를 국내 최초로 본점과 강남점에서 선보였다.

마크앤로나는 2008년에 세계 패션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다츠무라 토모아키가 론칭한 골프웨어 브랜드로 멋스러운 일상복으로 전혀 손색없는 감각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 카모플라쥬 무늬가 들어간 남성 재킷, 호피무늬와 화려한 색상이 어우러진 여성 바지 등이 있다.

갈수록 소비침체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 차별화 차원에서 단독 브랜드를 선보였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트렌디한 브랜드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백화점의 본질에 충실한 고품격 패션백화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한국화이자, '젤잔즈' 출시

주사제가 아닌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가 등장했다.

한국화이자는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 표적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5㎎'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제품은 염증성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 사용하는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인 'JAK pathway'를 차단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억제, 질환의 진행을 막는 기전의 치료제다.

회사는 제품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4200명 이상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제품이 기존 치료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효과를 보였다. 단독요법과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병용요법 모두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주지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새로운 기전의 젤잔즈는 면역원성 발생 없이 빠른 효과 발현과 지속적인 효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와 견줄만한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 신약의 등장으로 현재의 치료 패러다임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젤잔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증 내지 중증의 성인 활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더페이스샵, 봄 맞이 색조 화장품 할인

3만원 이상 구매 시 할인 쿠폰 증정

더페이스샵은 봄을 맞아 7일부터 17일까지 다양한 색조 제품을 할인하는 '컬러 페스티벌'을 연다.

행사 기간 전국매장에서 모든 구매고객에게 품목별로 50~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포인트와 페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주력 할인하며, 겨우내 칙칙해진 피부를 환하게 가꿀 수 있는 미백 기능성 라인인 '스킴 광채 보습 라인 등 도 4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출시돼 큰 인기를 얻고있는 '꽃네일리 인안 젤 쇼크'도 30% 할인이 적용됐다.

또 할인행사 기간 중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지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주고 '더테라피'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더테라피 3종 스페셜 샘플 키트'를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K리그 공식 스포츠음료 후원 협약식]

K리그 공식 스포츠음료 후원 협약식

롯데칠성음료, 2년간 K리그 공식 후원사 활동

"용품 지원·게토레이 홍보 나설 것"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K리그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공식음료 후원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4일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마케팅부문장, 한웅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16년까지 2년에 걸친 K리그 공식음료 후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칠성음료는 2016시즌까지 2년간 K리그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며 공식 음료로 독점적인 지위와 광고 마케팅 권리를 갖게 됐다.

롯데칠성음료는 K리그 클래식(1부) 및 챌린지(2부) 각 구단 선수들에게 스포츠음료 게토레이를 포함해 다물·아이스박스·보틀 등 각종용품을 지원한다. 경기장 A보드·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스포츠음료 게토레이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지난해 181만 관중을 동원한 인기 스포츠인 프로축구 K리그에 올해부터 2년간 후원사로 다시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90분간 최고의 플레이를 한 축구선수들이 게토레이를 마시며 수분을 흡수하고 미네랄 공급과 에너지 재충전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우체국알뜰폰 가입자 20만명

2013년 9월 이후 월평균 가입자 1만2000명

우체국알뜰폰 가입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김명수)은 우체국알뜰폰이 지난 3일자로 가입자 20만280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알뜰폰 판매가 시작된 후 월평균 가입자는 약 1만2000명이다. 특히 지난해는 이통사의 과징금/영업정지와 단말기 유통법 시행 등으로 알뜰폰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우정청은 고객 니즈를 반영한 주기적인 상품 변경과 위탁판매업체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알뜰폰의 가장 큰 장점은 통신비 절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의 1인당 월 평균 통신비는 2014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이통 3사의 3만6468원보다 69.5% 저렴한 1만1132원으로 집계됐으며 연간 가계통신비를 600억원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정청은 지난해 10월 기본료가 0원인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늘어나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기기변경·해지·명의변경 업무 등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이대목동병원, 17일 어깨질환 강좌

이대목동병원 어깨질환센터(센터장 신상진)가 오는 17일 오후 2시 병원 대회의실에서 '어깨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어깨관절의 날(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또 신상진 어깨질환센터장이 연자로 나서 어깨질환 전반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강좌에는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병원은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초음파 무료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02)2650-5143

/황재용기자

창의력 길러주는 게임 아시나요

게임제작·프로그래밍 체험도 OK… 수학문제도 게임처럼 풀어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네."

해마다 이맘때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학부모들이 많다. 새마음 새다짐으로 학기를 준비해도 시원찮을 판에 게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울화까지 치민곤 한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필수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빼앗을 수도 없는 노릇. 차라리 창의력을 기르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으로 자녀들의 시선을 유도해보면 어떨까. 어려운 수학문제도 게임을 할 듯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게임 만드는 재미 "알랑가 몰라"=아이폰·아이패드에서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타임 게임 위자드(Adventure Time Game Wizard) 앱은 게임을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홈페이지(atgamewiz.com)에서 내려 받은 모눈종이 형태의 스타터 키트에 게임맵을 그리기만 하면 된다. 아이템은 물론 함정, 전리품, 악당 등 게임요소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다. 완성된 스타터 키트를 앱으로 스캔하면 나만의 게임이 완성된다. 만든 게임을 친구와 공유하며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프로그래밍도 척척= 홉스카치'(Hopscotch)는 블록쌓기 게임처럼 프로그래밍을 체험할 수 있는 앱이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미리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블록 조립하듯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

소스코드 조합에 따라 캐릭터가 움직이고 게임이 작동되는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학습도 가능=퍼즐 게임 형식인 '프레임스(FRAMED)' 앱은 스토리보드처럼 등장하는 장면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한편의 탐정 영화를 제작하듯 스토리보드의 퍼즐을 제대로 구성해야 주인공의 탈출을 도울 수 있다. 실패할 경우 다시 반복하며 잘못된 조합을 바로 잡는 훈련도 가능하다. 스토리가 완성되면 '나만의 멋진 엔딩'을 즐길 수 있다.

◆종이접기도 스마트폰으로=스마트폰 종이접기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폴즈폴드'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종이접기를 즐길 수 있는 앱이다. 손가락으로 화면 속 종이 끝을 터치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면 종이가 접힌다. 정확히 종이 끝에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종이가 접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9개 테마와 80개가 넘는 다양한 종이접기를 만날 수 있다.

◆수학 문제도 게임하듯 척척=어려운 수학의 원리도 게임을 통해 깨우칠 수 있다. '알게브라 터치(Algebra Touch)'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져가며 문제를 풀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이다. 숫자와 기호를 손가락 터치로 움직이다보면 수학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다. 잘못된 해법일 때는 경고음을 들려주고 제대로 푼 경우 숫자가 쾅쾅 터지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컴투스 '낚시의 신' 흥행 월척

포켓게이머 어워즈 최고 스포츠게임 선정

인기 모바일 게임 '낚시의 신'이 국제적인 흥행 발휘을 올렸다.

5일 컴투스에 따르면 '낚시의 신'은 영국의 모바일 게임 전문매체 '포켓게이머'에서 선정한 최고의 스포츠게임 부문을 수상했다.

포켓게이머는 지난해 출시된 전세계 게임을 대상으로 후보를 선별한 뒤, 이용자 투표를 통해 스포츠·RPG·퍼즐 등 각 장르별 인기 게임을 선정했다. 낚시의 신은 각 장르별 수상 게임 중 유일한 국내산 모바일 게임으로 수상 영광을 더했다.

포켓게이머 측은 "낚시의 신은 3D 물고기의 생생한 움직임과 간단한 조작 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양한 물고기 종류와 뛰어난 그래픽도 장점"이라고 평했다.

지난해 3월 10개 언어로 출시된 이 게임은 출시 5개월만에 전세계 누적 다운로드 2000만 건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윤희기자

아이온 PvP 대회 '전설의 데바'

MMORPG '아이온'의 전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엔씨소프트가 레기온 리그전 '전설의 데바' 신청 접수를 18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전설의 데바'는 상위 레기온 16개팀을 선별, 각 조 리그전 경기를 통해 최강의 레기온을 뽑는 PvP(개인간 대전) 대회다.

참가 신청은 동일 레기온 소속 서로 다른 직업, 라이브 서버 65레벨 캐릭터 11인으로 구성된 팀 누구나 가능하다.

리그 16개 팀은 신청을 통해 선발된 팀원 11인의 PvP 기량과 요새전 성공 기록 등 단합 점수에 의거 선발된다.

조별 리그전은 24일부터 27일까지, 4강·결승전은 28일 열린다. 모든 경기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킹은 '캔디 크러시 소다' 한국 출시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다. 사진은 캔디 크러시 소다 광고 모델들. 왼쪽부터 바둑황제 조훈현, 작곡가 윤학원, 래퍼 정동근, 탤런트 송재림과 김소은, 가수 박재범, 배우 라미란, 발레리나 강수진. /킹코리아

더욱 달콤하고 화려해진 '캔디 크러시 소다'

전작보다 귀엽고 풍성해진 캐릭터 아이템
조작 쉽지만 마스터는 어렵게 난이도 조정

유명 게임기업 킹이 캔디 크러시 쌍끌이 흥행에 나섰다. 인기 모바일 게임 '캔디 크러시 사가'의 후속작 '캔디 크러시 소다'를 국내 상륙시킨 것이다.

킹은 5일 캔디 크러시 소다 설명회를 열고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양대 마켓 출시를 공식 알렸다. 우리나라 광고 모델로 바둑황제 조훈현과 발레리나 강수진 등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도 예고했다. 이번 출시회는 킹 한국 지사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캔디 크러시 소다 한국 출시에 대한 킹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5일 서울 청춘동 신라호텔에서 개관 캔디 크러쉬 소다 출시 행사에서 오세욱 지사장이 게임을 소개하고 있다. /킹코리아

◆다양해진 캐릭터 화려한 광고 모델

캔디 크러시 소다는 보라색 소다(청량음료)를 소재로, 소다곰 가족이란 새로운 캐릭터와 캔디를 등장시킨다. 전작과 비교해 다섯 개의 새로운 모드와 캔디 조합이 추가됐다. 특히 청량음료의 톡톡 터지는 탄산 특징에 착안해 소다가 채워진 공간에서는 중력 반대 방향으로 캔디가 통통 튀는 효과를 도입했다.

한편 킹은 이날 한국 공식 TV광고 영상도 공개했다. 슬로건은 '내 삶의 스윗소다'로 정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각계 유명인 8명이 광고 모델로 나서 화제를 모았다. 발레리나 강수진, 가수 양동근에 이어 IT 모델로는 이례적인 바둑황제 조훈현까지 모델로 활동한다.

오세욱 킹코리아 지사장은 "캔디 크러시 소다는 전작보다 더욱 풍성한 캐릭터와 효과로 톡톡 튀는 재미를 제공한다"면서 "조작 방식은 쉬지만 마스터는 어렵게 설정해 도전 욕구를 불러 일으키게 됐다. 캔디 크러시 시리즈가 글로벌 초흥행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인간적 방황, 연기에 도움됐죠"

영화 '조류인간'으로 배우 선언 **소이**

밝고 귀여운 모습만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이(35)는 "누구나 마음속에 절망은 있지 않나"며 "한때는 방황의 아이콘이었다"고 털어놨다.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쉬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에서 영화 '조류인간'(감독 신연식)에서 그가 연기한 소연의 모습이 살며시 드리웠다.

지난달 26일 개봉한 '조류인간'에서 소이는 자신의 본명을 따온 소연을 연기했다. 15년 전 사라진 아내 한비(정한비)를 찾아 헤매는 소설가 정석(김정석)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정석과 여정을 함께 하는 인물이다. 한비가 어디로 간지 알고 있다며 정석을 안내하는 소연은 영화 내내 그 속마음을 감추며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영화 내내 환한 웃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소연이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 사람이 아닌 새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연은 새가 되지 못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소이가 공감한 것은 바로 그 소연의 절망이었다.

걸그룹 티티마 데뷔 당시 보여준 밝고 귀여운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소이가 절망을 말하는 모습은 언뜻 낯설다. 그러나 소이는 "밝은 모습만이 내 전부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런 모습만을 원하는 것이 마치 나를 부정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티티마 소이와 인간 김소연(소이의 본명) 사이에서 생기는 고민과 갈등이 곧 그가 지닌 절망의 정체다.

"열다섯 살 때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왜 우는지 몰랐죠. 그때부터 이미 어두운 김소연이 제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 안에서 짜여진 게 스물네 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돌보지 않은 어두운 모습을 끄집어내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방황의 시기였죠(웃음)."

그럼에도 소이는 꿈꾸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저는 몽상가예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땅에 두 발을 내딛지 않고 꿈꾸는 사람은 '몽상가'가 아니라 '허상가'죠. 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공중을 떠다니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황의 시기에도 현실에 두 발을 내딛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소이는 '조류인간'의 소연이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연기로 승화시키는 경험은 소이에게 배우로서 더욱 단단해지는 경험이 됐다. '조류인간'은 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배우라고 소개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소이에게 특별하다.

원하는 삶 못 사는 연들 절망에 공감 가장 큰 무기 열정 다작 배우 되겠다

소이는 "내게는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나 타고난 천재성은 없지만 대신 열정이 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지금 그 열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배우다. "마동석 선배님처럼 다작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다른 배우처럼 색깔이 확고하거나 아니면 도화지 같은 배우도 되고 싶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배우로서 가야할 길은 많은 작품을 하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 팔딱팔딱하게 피어오르는 꿈과 감성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하게 굳으면서 어느 순간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이는 "70살이 돼도 지금의 감성을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제 소이에 대한 밝고 귀여운 이미지는 잊어야 할 때가 됐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가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중의 시선은 신경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존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 유일한 무기인 열정으로 끈기 있게 제 자신을 표현한다면 언젠가는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타임드림이엔티/이민주 디자인/김아름

star bag

'순정에 반하다' 첫 촬영

배우 **김소연**이 JTBC 새 금토드라마 '순정에 반하다' 첫 촬영 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분이 좋다"며 "첫 촬영을 했는데 따뜻한 스태프를 만난 것 같다. 나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은 '순정에 반하다'에서 화유내감 비서 김순정 역을 맡았다. 정경호·윤현민, 두 남자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내달 3일 첫 방송.

내달 세 번째 내한 공연

기타리스트 **코타로 오시오**가 다음달 10, 11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내한공연을 연다.

'황혼'으로 유명한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내한공연을 개최한 바 있다. 2002년 데뷔한 그는 오픈 튜닝과 태핑 주법 등 다양한 테크닉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보서 '봄의 여신' 변신

배우 **고성희**가 스타일 매거진 '인스타일' 창간 12주년 기념 뷰티 화보에 참여했다.

고성희는 코랄 컬러 뮤즈로 선정돼 봄 느낌이 나는 화보를 완성했다. 오는 6일 종영되는 KBS2 금요드라마 '스파이'에 예시 열연 중이다.

직접 부른 '제비꽃' 공개

배우 **지성**이 부른 '제비꽃'이 5일 공개됐다. 노래는 음유시인 조동진이 85년 발표한 곡이다.

지성은 학창시절부터 이 노래를 좋아했고 '제비꽃'이 작품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며 제작진에게 직접 리메이크를 제안했다. OST의 한 관계자는 "지성의 담담한 음색이 프로 가수 이상으로 원곡 분위기를 잘 살렸다"고 말했다.

봄의 시작 알리는 '클래식 향연'

서울시향 6일 '스프링 앤드 스위트' 시작 다양한 무대

안토니 비트

서울시립교향악단 현악실내악팀 앙상블 수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봄과 어울리는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엄선했다.

서울시향의 현악실내악팀 앙상블 수(秀)는 6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무대서 '스프링 앤드 스위트'로 달콤한 소리를 울린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과 '사랑의 기쁨', 슈만과 브람스의 실내악 작품 등 정통 클래식은 물론 재즈, 뮤지컬 삽송, 애니메이션 주제곡 등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앙상블 수는 신아라(부악장), 홍웨이 황(비올라 수석), 이영수(더블베이스 부수석) 등 뛰어난 음악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11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연인들의 날 '화이트 데이'인 14일엔 이스라엘 출신 신예 음악가 라하브 샤니와 보리스 길트버그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과 드보르자크 '신세계'를 선보인다.

로맨틱 클래식 시리즈 공연으로 젊은 지휘자 라하브 샤니는 2013년 밤베르크 교향악단 주최 '구스타프 말러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다. 샤니와 협연무대를 꾸밀 피아니스트 보리스 길트버그는 2013년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길트버그는 이날 두텁고 무거운 질감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클래식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시향의 시리즈 공연도 열린다.

20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실내악 시리즈인 '포레 스페셜'을 열고 근대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브리엘 포레의 실내악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 이날 공연에서 단원들은 낭만주의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포레의 대표 실내악 작품을 선사할 계획이다. 웨이 리안(바이올린 부수석), 임가진(2바이올린 수석), 홍웨이 황(비올라 수석), 주연선(첼로 수석)과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지석영이 '현악 사중주 e단조'와 '피아노 오중주 1번 d단조'를 선보인다.

폴란드의 거장 안토니 비트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향 지휘대에 오른다. 안토니 비트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더 브릴리언트 시리즈 Ⅱ'를 열고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을 지휘한다. 이날 우크라이나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발레리 소콜로프도 무대에 올라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다. 문의 02-3700-6334

/김지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줄리언 무어, 치매 앓는 여교수 열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안긴 '스틸 앨리스' 내달 개봉

올해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줄리언 무어(사진)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스틸 앨리스'가 다음달 3이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스틸 앨리스'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며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던 여교수 앨리스(줄리언 무어)가 알츠하이머에 걸려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줄리언 무어는 '스틸 앨리스'로 제87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물론 제72회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과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배우조합상, 크리스틱스 초이스 어워즈, 美 스프링 영화제 등 각종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알렉 볼드윈과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극중 앨리스의 남편과 딸 역할을 맡아 호흡을 맞췄다.

국내 개봉 확정과 함께 영화 속 장면들을 담은 스틸도 공개됐다. 아카데미가 인정한 여배우 줄리언 무어의 다양한 감정이 묻어있는 표정을 담아 눈길을 끈다. 저명한 여교수로 완벽한 삶을 살던 앨리스가 초점을 잃어버린 눈동자로 다른 곳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기는 변화된 모습에서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

/장병호기자 [illegible]

KBS 단막극 '고품격 영화' 선언

KBS가 혁신적인 단막극 편성을 계획했다.

KBS2 드라마스페셜 2015 시즌1이 100분(50분 2부작 연속 방송)으로 확대 편성된 것이다. 특히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재로 영화 못지 않은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드라마스페셜 2015 시즌1은 총 4편으로 구성됐다. 13일 방송되는 휴먼드라마 '가만히 있으라'는 시즌1의 첫 번째 주자다. 두 번째 작품 '바람은 소망하는 곳으로 분다'는 신분을 숨긴 채 40년을 살아온 탈옥수 3명과 그들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다. 정통 미스터리 스릴러로 거듭되는 반전을 선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블랙코미디물 '머리심는 날', 다음달 3일에는 로맨틱코미디 '웃기는 여자'를 방영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30분 방송.

/전효진기자 [illegible]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의 후배그룹 엔플라잉이 엠넷 '썸머 스터디'를 통해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선다.

/FNC엔터테인먼트, CJ E&M 제공

FT아일랜드 동생들 '엔플라잉' 뜬다

4인조 남성그룹 상반기 앨범 발표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의 후배그룹 엔플라잉(이승협·권광진·차훈·김재현)이 올 상반기 국내에서 정식 데뷔한다.

엔플라잉은 오는 11일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썸머 스터디'로 얼굴을 알린 후 데뷔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5일 밝혔다.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의 뒤를 잇게 될 엔플라잉은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과 멤버별 개성이 담긴 다양한 콘텐츠로 팬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씨엔블루 이후 5년 만에 내놓는 남성그룹인 엔플라잉은 이미 일본 인디신에서 음악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들은 첫 번째 인디즈 싱글 '바스켓(BASKET)'으로 오리콘 인디즈 주간 차트 2위, 두 번째 인디즈 싱글 '원 앤 온리(One and Only)'로 일본 타워레코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엔플라잉은 FT아일랜드 '2013 제프투어', '2014 라이브투어', 씨엔블루 '2013 아레나투어'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또 지난해 3월과 12월에 열린 FNC엔터테인먼트의 패밀리콘서트 '2014 FNC 킹덤 인 재팬' 무대에 선배들과 함께 나란히 오르는 등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한편 엠넷 '썸머 스터디'는 개그우먼 이국주의 사회로 엔플라잉이 매주 다른 멘토에게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배우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방송.

/[illegible]기자

3월 14일 토 밤 11시 첫방송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Real
follow me 5
Queen
tcast

<시즌>

EPL 6호골, 한국선수 그 누구도 못 밟은 길

기성용, 박지성 5골 넘어…김보경 2경기 연속골

기성용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인 선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작성했다.

기성용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와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지던 전반 19분 동점골을 넣었다.

이로써 기성용은 정규리그만 시즌 6득점을 기록해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썼다. 종전까지는 은퇴한 박지성이 2006-2007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5골을 기록한 것이 최고였다.

기성용의 활약에도 스완지시티는 토트넘에 2-3으로 패배했다.

기성용은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수시로 최전방까지 넘나들며 골을 노렸다.

토트넘은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대니 로즈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나세르 샤들리가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을 갖다 대 골망을 흔들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스완지시티는 최전방 공격수 바페팀비 고미스가 의식을 잃고 경기장 밖으로 실려나가 우왕좌왕했다.

이때 기성용이 닐 테일러의 도움을 받아 골대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반대편 골망을 가르는 동점골을 넣으며 팀에 힘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스완지시티는 후반 6분과 15분 라이언 메이슨과 안드로스 타운센드에게 연속골을 얻어맞았다. 후반 43분 길피 시구르드손이 만회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기성용(스완지시티)이 5일(한국시간) 열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경기에서 전반 19분 동점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경기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기성용에게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7점을 매겼다. 축구 통계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은 "스완지시티 선수 중 가장 높은 42차례 패스를 시도해 92.9%를 성공시켰다"며 7.24점을 부여했다.

사우스웨일스 이브닝 포스트는 "수비형 미드필더이지만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며 득점력까지 과시하고 있다"며 "박물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스완지시티의 자세더 주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은 아스널전에 선발출전해 풀타임 활약했지만 팀은 1-2로 패했다.

챔피언십 김보경(위건 애슬레틱)은 노리치시티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1일 블랙번전에서 1년 3개월 만의 골 맛을 본 김보경은 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부활을 확실히 알렸다.

/정민우기자 mk.kr@metroseoul.co.kr

빅리그 진입 눈앞 최지만 수비중 종아리 골절 불운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 40인 로스터에 포함돼 올해 메이저리그 입성을 눈앞에 뒀던 최지만(24·사진)이 시즌 첫 시범경기에서 오른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불운을 겪었다.

최지만은 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시범경기에서 9회초 1루 수비를 하다가 부상을 했다.

샌디에이고 다일러 김케이의 타구를 잡은 시애틀 유격수 타일러 스미스가 악송구를 했고, 이를 잡으려고 늘어 뒨 최지만이 각지자세에서 발을 헛디뎠다. 시애틀은 경기 뒤 "최지만이 오른 종아리 골절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재활에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지만 6회초 베수스 몬테로를 대신해 1루 수비에 나섰다. 6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에 성공했다. 이어 패트릭 키블리한의 중견안타 때 3루에 도달했고 파이크 다우드의 유격수 앞 안타 때 홈을 밟아 득점도 올렸다. 7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김민준기자

추신수 시범경기 개막전 1안타 1타점

수비도 열품 '합격점'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시원한 안타를 뽑아내고 재기를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추신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왼쪽 팔꿈치, 9월에는 왼쪽 발목을 수술해 일찌감치 시즌을 접은 추신수는 무려 6개월 만의 실전에서 안타를 때리고 시즌 성공을 향한 청신호를 켰다.

0-6으로 뒤진 1회말 첫 타석에서 신예 투수 에린 브룩스를 맞아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1-4로 뒤진 3회말 무사 1, 3루에 들어선 두번째 타석에서는 요한 피노를 상대로 2루수 옆을 스쳐 우익수 앞으로 빠져나가는 1타점 적시타를 쳐냈다.

추신수가 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서프라이즈 야구장에서 열린 2015 시즌 첫 시범경기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3회말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회초 수비에서는 재럿 다이슨의 우중간 방면 안타성 타구를 끝까지 따라가 포구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추신수는 텍사스의 3회말 공격이 끝난 뒤 네이트 슈어홀츠와 교체됐다.

텍사스는 캔자스시티에 2-13으로 대패했다.

추신수는 다르빗슈 유가 선발 등판하는 5일 캔자스시티와의 시범경기 두 번째 경기에는 쉬고 6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다. 올해 추신수는 선두타자가 아닌 3번 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민준기자

강정호 벤치…경쟁자 머서 빠른 발로 1득점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 첫날 솔로포로 화끈한 신고식을 치른 '한국산 거포'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두 번째 경기에서는 휴식을 취했다.

피츠버그는 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든턴의 매케크니 필드에서 열린 한 시범경기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1-4로 패했다.

피츠버그는 6번 타자 유격수 자리에 강정호의 올 시즌 포지션 경쟁자로 지목된 조디 머서를 주전으로 내보냈다. 머서는 이날 2회말 1사 1루에서 삼대 실책을 틈타 2루까지 진루하며 2, 3루를 만들었다.

이어진 스티브 롬바르도찌 타석에서 선행주자 페드로 알바레스가 홈을 노리다가 아웃될 때 3루까지 진루한 머서는 토론토 투수가 다음 타자 벨 로비스 주니어에게 폭투를 던진 틈을 타 홈을 밟으며 피츠버그의 유일한 득점을 기록했다.

5회말 2사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머서는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6회초 수비부터 유격수 구스타보 누네스와 교체됐다. /김민준기자

류현진 마지막 불펜피칭 "굿"

7일 라이브피칭 실전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마지막 불펜 피칭을 성공적으로 소화하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류현진은 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다저스 스프링캠프장에서 마이크 볼싱어, 크리스 리드와 함께 불펜 피칭을 했다. 스프링캠프 들어 네 번째 불펜 피칭이자 등 통증으로 훈련을 거르고 나서 시행한 두 번째 불펜 피칭이다.

류현진은 팀의 주전 포수인 A.J 엘리스와 짝을 이뤄 총 34개의 공을 던졌다. 이날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류현진은 오는 7일 타자와 주자 등을 두고 실전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포수 엘리스는 "류현진이 모든 구종을 던졌는데 무척 좋았다"며 "류현진이 올 시즌 준비를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시한폭탄' 가계부채, 해법은?

기자 수첩

박 아 란 <경제부 기자>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09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67조 6000억원(6.6%) 증가한 규모다.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다 정부가 빚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등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하했다. 부동산 금융규제 등이 완화되니 빚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구조개선 노력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관리 가능하다"며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역시 국회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빨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임 내정자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대출 억제책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미시적인 대응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만으로 소비심리와 가계부채를 개선하기엔 부족하다. 부실 대출과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다 금리 추가인하 등으로만 실물경제를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 소득을 늘려 빚을 갚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가계 부채 총량을 관리해 증가율을 낮추는 한편 전세가격 안정과 대출규제 강화 등 경제 활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날씨

3/6 金 일출 06 58 일몰 18 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0.co.kr

서울 / 철원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 제업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기가능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을지대학교 서울병원 (www.eulji.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you.com

결혼·취업 못한 아들 사람 구실 할까요
운명 현실 바꿀 수 있어… 노력에 달렸다

할머님이 남자 78년 8월 21일 酉時

Q 메트로 신문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다가 김상회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보면서 제 아들에 대한 것을 여쭈워 봅니다. 제 아들은 외롭 어나기 이름을 지어 오실 때 철학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 아들이 '큰 대들보 와 같고 호랑이를 타고 있는 형상'으로 크게 성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서 집에서 노는 날이 많으며 말하는 것도 어눌하여 남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왜 사주 팔자와 현실이 안 맞는 것이며 어찌 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지요.

A 외할머니께서 아드님의 이름을 지은 곳에서 말한 것은 생일 지(戊日支) 태어난 생일(日)를 기준으로 말을 했다고 보며 틀린 말은 아닌듯합니다. 시대에 따라 학문적 분석도 고속화되고 발전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가 틀리고 맞고를 논하기 전에 성장하면서 집안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대들보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인즉 운의 흐름이 사주팔자에 조화를 억주행하면 기대한 바를 바꾸어 놓고 분별심이 생기지 않으며 특별한 작면 없이 자기표현이나 주장도 없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운세의 흐름이 길 선행이 되는데 저유해 전생사주에 대해 연구하기가 방대하기에 구체적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날의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받드는 신(神)들이 우주를 지배하고 믿고 있는 자신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주 명리 학에서는 사주가 기본 틀이요 운(運)이 곧 신이며 그 기운이 각자를 지배하는 것으로도 분석합니다. 기도로 자신 틀을 바꿀 수 있듯이 명리 학에서도 운명현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듯이 그러니 아무리 좋은 사주팔자라 해도 아무것도 안하고 잘되기만 바라서는 안 되겠지요. 일상적인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 좋아 질 수가 있도록 하기에 사주를 보는 것이고 좋은 것은 더욱 잘 되도록 독려 하는 것이며 안 좋은 것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학문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면 근히 본다면 운명을 알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분을 알게 되어 자기 본분을 알면 나가야 할 진로를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 나가면서 나름대로 뜻하는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세한 면상 다시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선택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7	9			
		4						7
7	6			8		9		
9					5	6		
	5						8	
		6	2					3
		5		3			2	1
8						3		
			6	1				8

2	6				1			
		9					3	2
	4			8				7
8			9					
9	3	1	7		8	2	5	6
					3			8
3				9			6	
7	9					3		
			6				2	9

스도쿠 정답

출처 제공: 북뉴스 『퍼지 스도쿠 프리미어』 (마크 고든 · 브렌다 로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3월 6일 (음 1월 16일)

사주스쿨 www.sajuschool.com 080-301-8400

쥐: 48년생 잘 될 듯하다가 실패 주춤합니다. 60년생 누군가를 추천하는 일이 생깁니다. 72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4년생 다른 이의 협력 필요로 하는 하루입니다.

소: 49년생 성과는 후히 골고루 돌아갑니다. 61년생 문제의 조력자가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73년생 작은 선물로 사랑하는 감정이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85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자만하면 금히 될 물러지 않습니다. 62년생 스스로 적당한 나이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74년생 오랜 고민이 해결됩니다. 86년생 기운이 강해 주변사람들이 인도되겠습니다.

토끼: 51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바랍니다. 63년생 얼마전부터 바라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75년생 문제의 실마리를 풀게 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유쾌상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용: 52년생 자신의 마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64년생 뭉치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88년생 조그만 행운이 많은 날 됩니다.

뱀: 53년생 자루 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65년생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시켜 보세요. 77년생 겸손와 대른 매끄러움이 필요합니다. 89년생 그룹에 동운이 따르는 운이 있습니다.

말: 54년생 오해에서 풀리지 않은 불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66년생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78년생 열정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90년생 늦은 귀가는 절대 피하세요.

양: 55년생 대인관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67년생 공격정을 상기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79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신경을 쓰세요. 91년생 가정 상은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중하기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80년생 하는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92년생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관찰해보세요.

닭: 57년생 과로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69년생 두뇌회전이 빠른 하루입니다. 81년생 도전정신이 왕성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93년생 최근에 만난 사람을 조심하세요.

개: 58년생 사방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70년생 노력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82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94년생 여행을 계획한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돼지: 59년생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71년생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83년생 어려운 곳에 취지지 마세요. 95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유혹이 필요합니다.

닭집보며 소원빌기 정월대보름인 5일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에서는 한 해 액운을 몰아내고 소원을 비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14,000,000,000,000

사망원인 1위 암 사회경제적 비용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14조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5대 사망원인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살·당뇨병 등이다. 또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순위는 암이 146.5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심장질환(52.5명) ▲뇌혈관질환(51.1명) ▲자살(28.1명) ▲당뇨병(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이들의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27조3635억원에서 2012년 32조4086억원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12년 기준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중에서 암은 14조86억원(4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살이 6조4769억원(20.0%)으로 2위에 올랐으며 뇌혈관질환(5조1297억원·15.8%)과 심장질환(4조186억원·12.4%), 그리고 당뇨병(2조7748억원·8.6%) 순이었다.

성별로는 2012년 기준 남자가 23조668억원(71.2%), 여자가 9조3418억원(28.8%)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조8596억원(27.3%)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황재용기자

'조선거지' 해볼까

민속촌 알바 오디션 화제

한국민속촌이 조선시대 아르바이트 오디션을 연다. 지난해 한국민속촌은 독특한 아르바이트 모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과 한국민속촌은 아르바이트 오디션 '조선에서 온 그대'를 공동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선에서 온 그대'는 한국민속촌이 다음달부터 진행하는 조선시대 배경의 축제 '웰컴투조선'을 이끌어갈 주인공을 선발하는 자리다. 한국민속촌은 방문객들이 실제 조선에 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각 캐릭터 이미지와 어울리는 이들을 뽑을 예정이다. 선발할 조선시대 캐릭터로는 구미호, 엿장수, 거지, 무당 등으로 높은 시급과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성인 남녀 누구나 아르바이트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심사는 서류전형과 오디션을 통해 진행된다. 선발 기준은 캐릭터 소화능력과 아이디어, 순발력, 서비스 자세 등이다. 한국민속촌은 약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원서 접수는 9일까지 알바몬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양윤희기자 unique@

대학 학과 구조조정 바람

중앙대·이대 등 갈등 커져

생기가 넘쳐야 하는 새학기 대학가가 뒤숭숭하기만 하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교수와 학생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먼저 재작년 인문대학 소속 4개 학과를 통폐합하면서 학내 갈등을 촉발했던 중앙대학교가 지난달 26일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부터 학과제를 전면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해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획 발표 후 재작년과 같이 교수와 학생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수와 학생은 학과 폐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전조라는 입장이다. 중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와 다시 충돌하며 학생들 역시 1인 시위 등으로 학교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중앙대 한 재학생은 "학생뿐 아니라 많은 교수가 대학본부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일로 새학기부터 학교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갈등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발생했다. 이화여대는 미래 경제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달 기존 6개 학과와 새로운 1개 학과로 이뤄진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측이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신산업융합대학에 편입시켜 학과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학생들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학과개정안만 통보됐다고 주장해 학교와 학생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양여대 역시 최근 구조조정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학과 정원 조정과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공 통폐합과 관련된 다양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폐지 논란이 일었던 서일대에서는 문예창작과가 영화방송예술과로 통합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취업률을 이유로 학교가 학과를 폐지시키고 있다며 학교의 구조조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재용기자 hanul@metroseoul.co.kr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 경칩을 하루 앞둔 5일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한 공원벌에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경찰대, 필기시험 위주 선발 방식 바꾼다

경찰대학이 필기시험 위주의 기존 신입생 선발 방식을 변경한다.

5일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최근 '인재상에 부합하는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방안 강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적 검증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는 신입생 선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선발제도를 보면 ▲1차 시험 성적 20%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5% ▲체력검사 성적 5% ▲대학수학능력시험 50% ▲면접시험 성적 10% 등으로 필기시험이 70%에 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도 결국 고등학교 필기시험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대학 선발제도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데 맞춰져 있다. 정책연구는 지적수준, 인성, 체력 등 항목별 입학 성적과 재학생의 실제 학업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현 신입생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관하는 현 졸업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인사

■행정자치부

국장급 전보 ▲국제행정협력관 정민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체육관광정책실 국제관광과장 김근초 ▲저작권위원회 기획운영과장 여가정 ▲국립현대미술관 근무(파견) 직위) 노정록 ▲정의대비서실 박병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이사 ▲시설자산본부장 이수철 ◇전보 ▲수도권본부장 김명학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비상임이사 이원석 ▲서울지역본부장 이ㅇ영 ▲서울지역본부장 김종환 ▲인천지역본부장 이재원 ◇팀장 ▲충청교육원장 김희하

■대한주택보증

팀장 승진 ▲기획실 안원상 ▲공공지원실 김정하 ▲서울북부관리센터 이단지 ▲서울서부관리센터 석형일 ◇팀장 전보 ▲전략기획실 봉환 ▲인사지원실 김공수 ▲정보화지원처 홍주표 ▲홍보비서실 김홍인 ▲감사실 박혜준 ▲경제사업금융센터 유경찬 ▲서울북부지사 정병학 ▲대구경북지사 박병주 ▲서울서부관리센터 김상수 ▲서울동부관리센터 정사원 ▲충부관리센터 최종운

■고려대학교

부처장 인사 ▲총무처 부처장 겸 인재개발팀장 이석철 ◇부장 인사 ▲총무부장 겸 병무행정팀장 겸 상조회장 송인식 ▲국제교류팀장 조금생 ▲정보통신대학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유통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장 겸 정보대학학사지원부장 이상건 ▲예산팀장 윤택상 ▲법과대학, 법무대학원학사지원부장 겸 법학전문대학원학사지원부장 유원종 ▲미래전략실 부장 한재호

■건국대병원

▲체험센터장 이계명(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 ▲간호부장 박미정 ▲헬스케어센터 운영부장 박형림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장 겸 교학처장 전창수 ▲GIST대학장 고도경 ▲연구처장 이휘노 ▲대외협력처장 이용훈 ▲행정처장 이상철

■데일리 스포츠한국

▲총괄이사 신윤섭 ▲편집국장 김성우 ▲광고국장 이순곤 ▲제작부국장 김형철

■경북대

▲학생처장 전희석 ▲대외협력부처장 김원신 ▲산학연구부처장 이호

부고

▲손순옥씨 별세, 이두계(인천 영어마을 대표 사장)씨 빙모상 = 5일 오전 1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7일 오전 5시 30분. 032-460-3444

▲나남례씨 별세, 문인호(김포시 부시장)씨 빙모상 = 4일 오후 11시 광주 그린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62-250-4455

▲이선규씨 별세, 곽열(대구신문 북부취재본부장)·곽대영(칠곡군 공무원)·곽수(㈜이이지 몰에이트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장환(㈜대한하이라이트 대표이사)씨 장인상 = 5일 오전 2시 15분 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8시. 054-672-4700

▲김오례씨 별세, 김대영(한국가스기술공사 사원)씨 부친상, 김용선 국민일보 지국장(부산 기자)씨 시부상 = 5일, 경남 의창 세유상요양병원 1호, 발인 7일 오전 7시30분. 055-396-8373

▲정점호씨 별세, 변재윤(푸키뉴스 대표)씨 장모상, 조연희 지도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 4일 오전 10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6일 오전 8시. 02-2227-7587

美 대사 피습사건 '테러행위'

검찰 공안부 수사 나서… 피의자 중형 불가피

5일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 美대사 피습사건이 '테러행위'로 간주돼 수사 지휘를 검찰 공안부서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박성재 지검장)은 이날 대공과 대테러 업무를 맡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가 마크 리퍼트 미국 주한 대사 피습사건 수사를 전담 지휘토록 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를 든 진보 성향 문화운동단체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5)씨로부터 얼굴과 왼쪽 손목을 공격당했다. 리퍼트 대사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총 7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렸다.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동시에 김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배후세력·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행위를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주장한 '한·미연합훈련 반대'가 최근 북한이 강조한 대남 메시지이고 김씨가 8차례나 방북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씨에게는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9년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는 물론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25cm의 과도를 휘두르는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죄를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관련 시설과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완구 총리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진상 파악과 배후 규명을 철저히 하고 주한 외교시설의 경계 강화와 외교사절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습사건이 이미 발생한 뒤에 나오는 '뒷북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통화·문자 내역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북화해를 막는 군사훈련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리퍼트 대사는 수술 후 자신의 상태가 호전됐음을 전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한미동맹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윤체용기자 hyu@metroseoul.co.kr

정선 산불 이틀만에 진화 육군 제36보병사단 장병이 5일 강원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야산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했다. 4일 발생한 산불은 5일 완전히 진화됐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이용한 보이스피싱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 넘겨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갈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피의자들로부터 회수한 스마트폰. /연합뉴스

구멍 뚫린 공공아이핀

해킹 공격으로 75만건 부정발급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권장하던 공공아이핀이 해킹 공격을 당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 오전까지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75만 건이 부정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 말부터 아이핀 발급량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자 경위 조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해킹과 부정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재까지 부정발급된 공공아이핀 75만 건 중 17만 건은 3개 게임사이트에서 신규 회원가입이나 이용자 계정 수정 변경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공격이 주민번호를 도용해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에 침범해 공공아이핀을 대거 만들어내 사용한 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행자부는 부정발급된 공공아이핀 모두를 긴급 삭제했고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에 통보해 신규 회원을 강제탈퇴시켰다.

아울러 이번 공격에는 2000여 개 국내 아이피(IP)가 동원됐고 중국어 버전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에는 모두 동일한 공인인증서와 패스워드가 사용됐다.

이에 행자부는 프로그램을 수정해 해킹 공격을 차단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정부는 아이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프로그램 소스분석과 모의해킹을 실시하는 등 아이핀 발급·인증체계의 보안취약점 점검에 나섰다.

한편 게임아이템 탈취 등 실질적인 피해사항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2차선·방사형·U턴…10년된 중앙버스차로 보완

환승정류소 확대… 상습정체구간 개선

서울시가 10년을 맞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충하고 상습정체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진단에 나선다.

5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진단을 통해 방사형이나 2차선 등 새로운 형태의 중앙차로를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형 중앙차로는 외곽에서 도심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아래 지도 중 검은 선 부분)로 된 점을 고려, 수평적인 연결(빨간 선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2차선 중앙차로는 기존 버스 중앙차로가 1차선으로 운영돼 정류소 등에서 정체가 빚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 중인 부분이다.

시는 현재 대부분의 버스중앙차로에서 U턴이 금지돼 있어 승객들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지점별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U턴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이용객이 많은 중앙버스정류소는 환승거점으로 선정해 환승정류소를 확대 설치한다.

일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상습정체구간도 개선된다. 5월에는 공항로 중앙버스차로 중 단절된 공항전화국부터 발산역까지 1.6km를 개통한다. 2017년에는 천호대로 중앙버스차로 중 광나루역부터 이지산역까지 3.3km, 헌릉로 중앙버스차로 중 염곡동1교부터 복정역까지 9.7km 구간도 개통된다.

이용이 불편해 민원이 잦았던 지점의 개선 공사도 이뤄진다.

고속버스터미널 앞은 지하철 출입구 때문에 사선으로 휘어진 건널목을 일직선으로 펴고, 개봉사거리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을 개선한다. /조현정기자

학교폭력 꼼짝마… 경찰 내달까지 집중단속

경찰청이 다음달 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나선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학교 전담경찰관이 한때 폭력서클에 가입했던 학생과 1대 1 면담을 하고,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센터와 함께 폭력서클 현황 파악에 들어간다.

상습·집단적 폭력을 행했거나 학교 밖 폭력서클 또는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 여부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미한 폭력서클이라고 판단될 경우 학교 측과 협력해 즉시 해체, 가입 학생은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큰 학교에는 학교 전담경찰관 방문 횟수를 한달 월 2회에서 4회로 늘려 특별 관리한다.

기숙사나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학교 전담경찰관도 지정한다.

또 117센터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채팅신고 애플리케이션인 '117 CHAT'과 학교폭력 근절 포스터·동영상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고리원전 조사 본격화

고리원전 환경방사능 민관 합동조사단이 5일 고리원자력홍보관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조사단은 이날 조사반을 꾸려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기로 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세웠다. /황재용기자